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11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64 호

총기 50년 추계 강공회 개최

종령 예하 강훈, 승단 총회 등 방역지침 속 용맹정진



‘이전에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무시로 탐진치에 연유하여서...’ 지난 10월 20일 총기 50년 추계 강공회 참석한 전국 스승들이 강공회 개강 불사에서 불공 중이다. 이번 강공회는 종령 예하 강훈, 승단 총회, 종조 일대기 김천 작가의 ‘원정 대성사의 유년과 종교적 삶’을 주제로 한 강의 등으로 1박 2일 간 청송에서 진행됐다.



총리원장 인선 정사

총리원장, 동해중학교에 1억 원 장학금

송인근 교장 ‘조용한 회사, 행정상 공개할 수밖에’

총리원장 인선 정사가 종립 동해중학교에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하며 인재 불사를 발원했다. 이번 장학금의 회사는 동해중 이사장으로 겸임 중인 인선 정사가 지난 8월 25일 제198차 관음학사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교장실에서 송인근 교장과 김진화

교감만 대동한 채 조용히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인근 교장은 “1억 원이란 금액은 학교장 재량으로 지급 할 수 있는 장학금이 아니며, 이사장님의 회사 취지에 잘 맞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방세계 어디에서나 빛을 비추는 참된 부처’라는 뜻으로 ‘대일장학회’로 이름을 정했으며, 이사장님 뜻이 워낙 공개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학교 행정과 절차상 외부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와서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송 교장은 “이사장님 임기 후 종단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학교가 힘을 얻어 항상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이번 소중한 회사와 뜻에 고적원 모두 감화를 받고, 깊이 감사드리고 있으며, 다함께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동해중학교는 오는 27일 54주년 개교기념식에 앞서 장학금의 선별 및 장학금의 지도를 위하여 ‘장학생선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해당 학생들에게 첫 장학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박재원 기자

‘극락정토 왕생하여 열반적정 누리소서’

총기 50년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 엄수



종령 법공 예하를 시작으로 스승들이 훈향 정공과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전서호 기자

총기 50년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가 엄수됐다.

지난 10월 18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된 추선불사는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정진하며 전법과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된 종조 원정 대성사를 포함한 40명의 선

대 스승들의 왕생성불을 추념했다. 이날 추선불사는 종령 법공 예하와 총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한 집행부, 종의원과 서울 경인교구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반 스승에 대한 영식왕생성불과 유언영식왕생성불을 추선했다.

정기 중앙종의회, 51년 예산안 심의

신임 의원에 인덕심, 지홍 전수 선출

제158회 정기 중앙종의회(의장:우인 정사)가 지난 10월 18일 총리원 반야실에서 개최됐다. 제13대 종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기 종의회는 총기 50년 추경과 51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종단 제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종의회 의원 17명 전원을 선출해 지난 9월 개원한 제13대 종의회는 개원 직후 사임한 법등, 시정 정사 공석을 대신해 10월 20일 추계 강공회 승단총회에서 인덕심 전수와 지홍 전수를 신임 종의회 의원으로 선출했다.

종/조/법/어

일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명하면
몸의 병과 마음의 병 모두 소멸하느니라

지 면 안 내

2면 내 눈높이로 읽는 소의경전
6면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3화>

5면 이달의 법문/ 정원 전수
9면 역삼한담/ 성공하고 싶다면

불교총지중 창종 50년 기념법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0년 12월 15일 수요일

장소 _ 총지사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내 눈높이로 읽는 소의경전 <4>

대일경_주심품④

경전에 길이 있다

승원 정사

주심품에서는 존재의 실상을 아는 지혜(반야)를 일체지지(一切智智)로 표현하고 그 일체지지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허공계가 일체의 분별을 떠나서 분별도 없고 분별 없음도 없는 것 같이 일체지지도 또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대지가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일체지지 또한 하늘과 사람, 아수라의 의지처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불이 모든 것을 끝없이 태우는 것처럼 일체지지 또한 모든 어리석음을 끝없이 태웁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바람이 일체의 티끌을 날려 버리는 것처럼 일체지지는 모든 번뇌의 티끌을 날려 버립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일체 중생이 물에 의지하여 기쁨을 얻는 것처럼 일체지지는 모든 천신과 세간 사람들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줍니다.

일체지지(一切智智)는 허공같이 관념적 분별을 떠나고, 중생의 의지처가 되고, 어리석음과 번뇌를 태우며 많은 이익과 즐거움을 줍니다. 집금강비밀주가 설법을 듣다가 문득 “이렇게 공덕이 많은 일체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같은 지혜는 무엇이 원인이 되며, 무엇이 근본이 되며, 무엇이 그 구경(究竟)이 됩니까?

보리심(菩提心)이 원인으로 하고, 대비(大悲)가 근본이 되며 방편이 구경이 되느니라. 비밀주여, 무엇을 보리라 하는가? 이른바 여실(如實)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지지를 구해야 하느니라. 어째서인가?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마음, 즉 앞에서 보리와 일체지지를 구해야 하며 자기 마음의 실상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 보리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실상, 육문을 통해 알아지는 것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실재를 알려는 노력(정념)을 해야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마음이 그려낸 관념을 실체라 믿으며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 일체지지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종단에서 널리 알려진 밀교사구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實相絕莊嚴(실상절장엄)
삼계육도 그 모두 허망함이니
須觀眞實相(수관진실상)
모름지기 실상을 관조할지라
眞身難思議(진신난사의)
진신은 사의하기 어려울진대
切想大悲行(절상대비행)
고요히 대비행만 생각하리라

모름지기 실상을 관하라. 진신은 사의하기 어렵다.

허공상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허공상의 마음이란 것은 모든 분별과 무분별을 떠났으니, 성품은 허공과 동일하니 곧 마음과 같은 것이고, 성품이 마음과 동일하다면 곧 보리와 같은 것이다. 비밀주여, 이와 같이 마음과 허공계와 보리의 세 가지는 서로 다름없으니, 이것은 대비를 근본으로 하며 방편바라밀로 만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밀주여, 내가 말한 모든 법은 이와 같으니,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그 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비밀주여, 훌륭한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보리심을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같이 자기의 마음[自心]을 알아야 한다.

마음과 허공계와 보리 이 셋의 성품은 서로 다름이 없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앞(오온: 색수상행식)이 허공의 성품과 같다고 아는 것이 보리다. 허공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허공은 조건따라 자연히 구름이 생겼다 사라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다 자연의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소리가 있으면 들리고 형상이 있으면 보이고 냄새가 나면 맡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앞에 우리 마음은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이러한 앞의 성품이 무상, 고, 무아라는 것을 허공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허공같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설판재자 공모불사에 1,500여 사부대중 동참 중

기로·현직 스승, 신정회, 교도 등 전국에서 답지

올해로 창종 50년을 맞아 발간 예정인 ‘종단 50년 사(이하 50년사)’와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이하 일대기)’의 설판 공모불사 한 달여 만에 총지종 사부대중 1,500여 명이 동참 중인 가운데 2억 원에 달하는 희사금이 전국에서 답지하고 있다.

이번 출간되는 50년 사와 일대기 두 책의 뒷면에는 동참 사부대중의 명단을 수록해 설판재자를 전법의 역사로 남길 예정이며, 일대기는 모든 동참 설판재자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또 50년 사는 총 500권을 발간하여 역사

책의 가치로서 존치하고자 종단과 전국 사원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국립도서관, 불교 종합대학과 학회 등에 법보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판재자 공모불사에는 종령 법공예하를 비롯한 기로·현직 스승, 전국 신정회 지회, 각 사원 신정회 및 교도모임, 개인 등 사부대중이 재자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불사에는 종단에서 한평생 교화와 수행으로 정진하다 입적한 선대 스승의 이름으로 가족이 마음을 모아 큰 뜻을 내어준 기로 스승뿐만 아니라, 현직 스승 중에

는 먼저 타계한 동생을 추모하며 그의 애종심과 유지를 받들어 고인의 유산을 회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부분의 교도들은 개인이 설판재자로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재적 사원 신정회와 지회에도 뜻을 같이하는 등 이번 불사로 종조 선양과 종단 50년을 봉축하는 사부대중의 원력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오는 12월 15일 창종 50년 기념 법회에서 50년사와 일대기 봉정식이 봉행되며, 일대기 설판재자 동참은 이달 20일 마감예정이다. 박재원 기자

제191회 원의회 및 130회 재단이사회

법수연 전수, 원당 정사 연장근무 의결

학교법인 관음학사
제199차 이사회 개최

신임 감사에 남해 정사 선출



학교법인 관음학사 제199차 이사회(이사장:인선 정사)가 지난달 26일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개최됐다.

이사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재적 이사 8명 중 7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된 이번 회의에서는 2021 학년 법인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과 학교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11월 20일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도우 정사에 이어 단음사 주교 남해 정사가 2년 간 새 법인의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총지종에 질문있습니다! 불교총지종과 더불어 양대 밀교종단의 하나인 진각종이 편찬하는 ‘교화연구’ 편집위원들이 취재 차 통리원을 방문했다. 보원정 전수(대전 대승심인당)와 덕연화 전수(부산 보불심인당)는 지난 14일 종조전 참배 후 부장실에서 총무부장 원당 정사와 교정부장 승원 정사를 만나 종단의 교화와 수행, 행정에 관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승원 정사, 원당 정사, 보원정 전수, 덕연화 전수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1년 11월 1일 ~ 12월 31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종

이사장 인선 정사, 석관실버복지센터 방문 경로의 달 맞아 어르신께 감사 선물 전달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에 인선 정사가 ‘제25회 경로의 달’ 맞아 지난 10월 14일에 방문하여 어르신께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선 정사는 센터 관계자들과 어르신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 운영 중인 센터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당일 스마트폰 기초교육 ‘스마트클라쓰’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답례떡과 기념 수건, 마스크, 물티슈 등 감사의 선물을 직접 전달했다.

이사장 인선 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과 기념행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라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여 예전과 같은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재단의 이념인 자리이타 정신으로 성북구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센터 운영 정상화에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서호 기자**

불교방송 제7대 이사장에 정문 스님 10월 22일, 제113차 이사회에서 선출

재단법인 BBS불교방송 제7대 신임 이사장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이 선출됐다.

불교방송은 10월 22일 서울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제113차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금호스님을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종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이뤄진 이날 이사장 선출에는 정문 스님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후보로 나왔

으나 수불 스님이 후보를 사임하며 정문 스님이 단독후보로 추천됐다.

선출 직후 정문 스님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불교방송과 미디어 포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문 스님은 성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수계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사회부장 등 조계종 주요 소임을 맡으며 중무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경주 연지암, 포항



정문 스님

입허사, 보경사, 강화 보문사 등의 주지를 역임하며 전법·포교활동에도 힘썼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직 이사 22명 가운데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21명이 참석했다.

내마음의 등불 홍국사 서강 정사

육바라밀 실천의 의미

좋은 결과가 오는 육행은 제일 지혜, 제일 묵념, 제삼 용맹, 제사 하심, 제오 계행, 제육 회사이니,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총지종에서 실행하는 수행법은 불경에서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니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 여섯 가지의 나쁜 마음을 고치자면, 지혜로써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을 고치고, 묵념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맹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고치고, 하심으로써 열이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나는 진심을 고치고, 계행으로써 추잡한 행상과 악마 같은 행동을 고치고, 회사로써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육바라밀행인 동시에 대승적 실천불교가 된다. **〈종조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홍국사 서강 정사님은 자석사 도우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식민의 시대

지혜의논

유럽의 인도항로 개척은 향신료를 얻기 위한 욕망 서양에 의한 근대화, 또 다른 형태의 십자군 전쟁

세계사에서 근대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사건으로 1492년의 콜럼버스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의 도착을 듭니다. 예전에는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서구중심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비판받으면서 신항로의 개척, 대항해 시대 등의 용어가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콜럼버스를 미화하면서 서구중심의 역사인식이 통용되고 있지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구분하는데 유럽은 어느 정도 동질적인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북과 이남의 문화가 매우 이질적입니다. 인종적으로도 사하라 사막 이북은 백인종이고 이남은 흑인종으로 뚜렷이 구분됩니다. 아시아도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서아시아 지역은 사실 유럽과 한 문화권으로 묶여있다가 이슬람교가 성립하면서 문화권이 나뉜 경우이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여있던 것이 지중해를 경계로 이슬람교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은 동쪽에서 이주해온 투르크족이 주도권을 잡고 오스만 투르크국을 세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유럽은 오스만 투르크의 간섭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해오던 향신료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겨울동안의 식량으로 돼지고기를 훈제하거나 소시지 형태로 저장하였는데 장기간의 저장은 식량의 부패를 가져와 인도의 향신료는 식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이었죠. 참고로 유럽에 알려진 인도라는 지명은 현재의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포괄적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도착이나 1497년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항로 개척은 이러한 향신료를 얻기 위한 욕망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인도양은 서아시아

의 이슬람권의 물산과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생산물, 그리고 중국의 물산이 활발하게 교류되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도착한 다카마의 일행이 가져간 유럽의 물품은 그 품질이 조악하여 당시 인도양을 통해 교역되는 물품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처분한 물품의 돈으로 산 향신료는 무려 60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익에 눈먼 유럽인들은 미친 듯이 동방무역에 달려들었는데, 상품의 질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그들은 대신 무력을 앞세워 인도양 교역망을 장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이 이슬람교에 대한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흐름과 별개로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권을 몰아내는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레콩키스타, 재정복 운동이라고 하는데 1492년은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낸 해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에 걸친 전쟁으로 배출된 군인과 전쟁무기들을 앞세워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화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식민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유럽은 흑사병으로 침체된 경제가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엄청난 금은재화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유럽의 각국은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전쟁상태로 돌입하지요. 그 과정에서 주도권이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다시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으로 이동하였다가 19세기에는 독일로 이동합니다. 이들 국가가 이후 제국주의로 성장하여 전 세계를 식민지로 분할하는 경쟁을 전개한 것입니다. 아마도 유럽이 15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로 팽창하는 과정은 십자군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양에 의한 근대화는 또 다른 형태의 십자군 전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연명의료 40

조현두 의학박사의 요양병원 이야기 연명치료와 보호자

법상 정사

“선생님, 오늘은 이 말을 꼭 전하기 위해 가족을 대표하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더 이상 수액을 주지 마십시오. 회복 가능성도 없이 고통만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의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서 보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눈자위가 붉어지고 어깨가 흔들렸다. 어머니 치료 문제로 찾아온 50대의 두 여성.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도 보내보았는데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보고 저 또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만큼은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는 우리 병원에 9년째 입원하고 있다. 다른 병원까지 치면 거의 10년 이상을 병상에서 보내고 있다는 말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병이 이처럼 너무 길어지면 보호자들도 탈진해 버린다. 3주 전에 잠시 퇴원을 하셨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모시고 왔었다.

“선생님, 어머니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말을 못 하고 침을 흘리고 오른쪽 팔, 다리에 마비 증세가 와서 모시고 왔습니다.”

“뇌졸중 같습니다. 큰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워낙 노령이고 수술을 받을 수도 없어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 병원은 요양병원이라 뇌졸중 같은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아시겠지만 뇌졸중은 골든타임

이 있어 빨리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큰 병원에 가지지 않고 꼭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겠다면서 약서를 하나 적어야 합니다. 뇌졸중이 왔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이 24시간 내에 사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병원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머니는 평소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하지 마시고 혹 돌아가시게 되면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환자가 입원하고서야 보호자들은 모두 돌아갔다. 수액을 투여하고 음식을 조금씩 먹이니 환자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다. 하지만 열흘 전부터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여 링거액을 계속 투여하였다. 의식 상태와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져 자녀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꼬집어야 겨우 눈을 뜨는 상태였다. 일주 전에 보호자가 면담을 왔다.

“선생님,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수액을 주지 말고 편안히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네, 힘드시지요? 아시겠지만 음식과 물, 수액은 환자에게 끊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고통만 있는데 제발 수액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의료법에도 환자에게 물과 수액은 끊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러시면 환자를 모셔가서 집에서 임종을 보시지요.”

보호자들은 환자를 집에 모시고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가족들의 합의사항을 말하였다. 그녀의 눈 속에 자책감과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점점이 얼룩져 있었다. 마스크를 쓴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녀의 우는 얼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고통이 와닿겠는가? 마스크 때문에 우는 모습은 눈만 보여 그 고통이 나에게 조금 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보호자가 웃으면 나도 조금 웃고, 보호자가 울면 그 슬픔이 전해져 와서 나도 우는 얼굴이 저절로 된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보호자가 울어도 구태여 우는 모습을 짓지 않아도 되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이다.

중증치매환자나 말기 암 환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들을 보살피다 보면 그 가족들도 환자와 마찬가지로, 아니 환자보다 더한 고통과 슬픔을 실제로 겪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도 중요하지만 환자 보호자의 오래된 고통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보호자들의 오래된 고통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병을 얻고 쓰러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요즘은 가정에서 치매노인 수발을 할 수 없는 시대이다. 요양병원에 모시고 오면 환자가 회복 불가능이라고 해서 환자를 포기하진 않는다. 수액을 놓아서라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이고 역할이다. 이제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고 소생의 가망이 전혀 없는 그에게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연명의료와 존엄사를 적극적으로 고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심보이야기 24

법선 정사

7식의 존재 증명하기 <1>

부과불교까지는 식을 여섯 가지 (前5識과 意識)로 나누었지만 인식의 주체(識體)는 ‘하나’라고 보았다. 그러나 유식설에서는 말나식과 아뢰야식의 두 가지 식을 더하여 인식의 주체를 여덟 가지로 설정하였다.

부처님께서 곳곳의 경전에서 심(心)·의(意)·식(識)에 대해 세가지 별도의 뜻을 말씀하셨다. 집기(集起)를 심이라 이름하고, 사랑(思量)을 의라 이름하며, 요별(了別)을 식이라 이름한다. 집기는 ‘모아서 일으키다’는 뜻이고, 사랑은 ‘헤아리

제6의식과 제8아뢰야식 외에 제6의식 밑에서 작용하는 심층심리이며 자아의식인 말나식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논서에서는 두 가지 경증(經證)과 여섯 가지 도리로써 증명하고 있다. 이것을 ‘말나의 이교육리(二教六理)’라 한다.

먼저 두 가지 교증(教證)은 “장식(藏識)을 심(心)이라 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意)라 하며, 모든 경계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을 식(識)이라 한다(藏識說名心. 思量性名意. 能了諸境相. 是說名爲識)”고 한 것이 그 첫

惱已. 此意從彼便得解脫.)’고 계송의 뜻을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 이때 이 의(意)와 상응하는 번뇌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에도 없다. 항상 4번뇌와 함께 하는 식은 제7식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경에서 말하는 염오의가 바로 제7식을 나타낸다. 즉 네 가지 번뇌와 항상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제6의식의 특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제7말나식을 말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또 제7식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여섯 가

유식설, 말나식, 아뢰야식을 더해 인식 주체를 8가지로 집기(集起)-심(心), 사랑(思量)-의(意), 요별(了別)-식(識)

다’는 뜻이고, 요별은 ‘분별한다’는 뜻이다. 대승경전인 『능가경』에는 장식을 말하여 심이라 이름하며, 사랑의 체성을 의라 이름하고 능히 모든 경의 모습을 요별하는 이를 말하여 식이라 이름한다.

말나식은 아뢰야식과 같은 심층심리로서 삼계를 윤회할 때나 어떠한 극한 상황에 처할 때라도 그 작용이 단절되지 않고 언제나(恒) 깊게(審)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식이라 한다.

요컨대 인식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말나식과 아뢰야식의 차이점은 아뢰야식은 미세하거나 분별이 없으며 저절로 행해지는 데 반하여 말나식은 아뢰야식을 인식의 대상으로 하여 깊고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강렬하고 집요한 자아의식, 즉 자기에 대한 강한 집착심을 갖는 것은 강하고 끈질긴 제7말나식이 제8아뢰야식을 집착하기 때문이다.

번뇌의 교증이다. 이 경문에 의거하여 보면 심이라는 것은 장식, 즉 제8아뢰야식과 여러 가지 경계를 분별하는 식, 즉 제6의식 외에 思量性을 가지고 있는 意라는 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랑성을 가진 식이 제6의식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히 제7말나식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또 『해탈경』에 ‘염오의는 항상 여러 가지 번뇌와 함께 생멸한다. 만약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면 염오의는 영원히 사라진다(染汚意恒時. 諸惑俱生滅. 若解脫諸惑. 非曾非當有.)’고 한 계송이 두 번째의 교증이다.

경에서 이 계송을 해석한 것을 보면 ‘염오의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네 가지 번뇌와 항상 함께 생멸한다. 네 가지 번뇌는 아견·아애·아만·아치이다. 다스리는 도(對治道)가 생하여 이 번뇌를 단절하고 나면 이 의는 대치도로부터 곧 해탈한다(有染汚意從無始來. 與四煩惱恒俱生滅. 謂我見我愛及我慢我癡. 對治道生斷煩惱已. 此意從彼便得解脫.)’고 계송의 뜻을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 이때 이 의(意)와 상응하는 번뇌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에도 없다. 항상 4번뇌와 함께 하는 식은 제7식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경에서 말하는 염오의가 바로 제7식을 나타낸다. 즉 네 가지 번뇌와 항상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제6의식의 특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제7말나식을 말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로서 증명하고 있다. 이것을 육리증(六理證)이라고 한다. 이 육리증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나식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① 제1이증: 不共無明證- 항상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식 -이란 “불공무명은 미세하게 항상 활동하면서 진실을 가린다. 만약 이 식이 없다면 불공무명은 마땅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不共無明. 微細恒行. 覆蔽眞實. 若無此識. 彼應非有.)”라고 한 것이 불공무명증이다.

무명은 어리석음으로 심소법에 해당된다. 심소법은 홀로 일어날 수 없다. 반드시 심왕(心王)인 식(識)과 함께 일어난다. 또 불공이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불공무명은 불공무명과 상응하는 그 식(識)에게만 있고 다른 식에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식왕(識王)인 식은 무엇일까? <다음호에 계속>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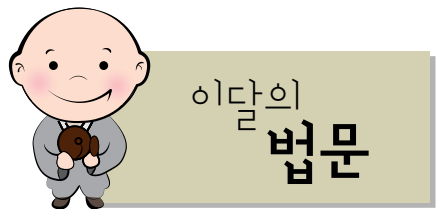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차시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實地)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 편 중>



행복이란 바로 감사하는 마음



건화사 정원 전수

행복의 열매는 실천에서

착한 사람은 남이 기뻐하고 자기도 기쁘다.

이생에서 기뻐하고 내생에서도 기뻐한다.

그는 두 생에서 기뻐한다.

자신의 청정한 행위가 즐겁고, 자기로 인해

선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한다.

부모나 어느 친척이 주는 이익보다도 착한 마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더욱 크다.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있듯

훌륭한 말에 실천이 따르면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

〈법구경, 法句經〉

“
감사는
절대로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

나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올지 참으로 걱정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물질 시대일수록 우리 종조님께서
는 종교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과학과 산업이 발전하여 좋은 물건

습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해 그늘에서 잠시
라도 쉬어가고 싶었지만 주위에는 작은 나
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만날
수 있었고 나무 밑에 들어서니 숨이 막힐
것 같았던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고 등줄기
땀방울도 식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쉬다 보니 그때야 나무
의 생김새가 눈에 보였는지 한 남자가 말했
습니다. 나무가 너무 못생겼고 몸통은 울퉁
불퉁하고 이 나무로는 집도 짓기도 힘들고
가구로도 만들기도 어렵겠어,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도 맞장구
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나무 덕분에 무더위를 피했
으면서도 금세 그 혜택을 잊어버린 것입니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둘째,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셋째,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
는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가만히 보면 받기만 하는 사
람, 묻는 일에만 답하는 사람, 묻는 말에도
답도 안 하는 사람, 서로 주고받으며 교감
하는 사람.

역경 속에서도 감사, 마음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
감사한 아침이 감사한 하루, 감사한 하루가 모여 감사한 일생이 돼

보살님들께서는 요즘 보살님들의 자녀
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입는 거, 먹는 거 넉넉하고 옛날에는 생각
지도 못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있고 재밌는 장난감도 많고 형제
수도 적어서 사랑도 듬뿍 받으니 많이들 부
러우십니까?

아니면 요즘 애들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
여서 우리들 세대가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종교의 힘이 필요한 때

보살님들 세대는 보릿고개도 겪었고 형
제들이 많아서 자기 방 갖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했고 장난감은 생각도 못했고 텔레비
전도 마을마다 한두 개씩 있어서 보고 싶으
면 눈치 보면서 그 집 가서 보아야 했고 지

금 생각해도 어찌 살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배는 고팠어도 속은 편했어
라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놀 시간이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스펙이나 뭐니 하
는 것도 쌓을 필요 없었고 대부분 가난하니
그저 잘 사는 아이가 좀 부러운 정도지 위
화감까지 느낄 일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열심히 일하면 월세로 시작해도
내 집 장만은 할 수 있었으니 땅의 대가가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고 넘
을 수 없는 벽이 많아졌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들어낸 심
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물을 사서 먹는 시
대가 되었고 코로나 같은 심각한 질병도 발
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

이 많이 생산되어 탐욕은 점점 높아지고 인
심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요. 100억 재산을
가진 갑부가 사업이 망하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한 그 사업을 정리하니 10억이나 남
았다고 합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지요. 10
억이나 있는데도 자살을 한다니 어처구니
가 없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의 현실
입니다. 물질만능주의가 무성한 시대에 살
고 있음에도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
니다.

평범한 일상의 교훈

행복한 세상이 오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
야 될까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

다. 나무 덕분에 무더위를 피한 두 사람이
그 나무에 대해 있으나 마나 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기쁨을 나누는 삶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
음이 있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울퉁불퉁할까, 가지가 무성하고 커
다란 나무로 자라나서 우리와 같이 더위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어
주는구나 하며 나무에게 고마워하고 나무
를 아름답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상투적이고
평범하게 보여도 생각보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생각하거나 입으로 내뱉지는 않습니
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 행복해
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조
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
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은혜,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도반들에 대한 고마움들은 자칫 지나쳐 버
리기 쉽지만 늘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감사한 아침이 모여서 감사한 하루가 되
고, 감사한 하루가 모여서 감사한 일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절대로 마음속에만 담
아두지 말고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어야 합
니다.

그렇게 표현될 때 비로소 서로 간 기쁨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입니다.

성도합니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대성사의 조부는 웅천에서의 임직을 마치고 안동 현감으로 영전한다. 안동 현감 이후 함경도 6진 중 요충지인 훈융진의 사령관 격인 훈융 첨사로 임명됐으나 연로한 노모의 봉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했다. 고종 17년인 1880년 1월 손규현은 지금의 평안도 강계에 해당하는 신광(新光)의 첨사(僉使)로 임명 됐다. 신광은 압록강을 마주하여 간도 접경이며 국방과 교역의 요충지이다. 신광 첨사는 무관으로 승진을 위해 거쳐야할 요직인 것이다. 후일 어린 대성사는 이 신광 땅을 밟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건너가니 인연의 뿌리는 깊고 오묘하다.

그해 4월 15일 승정원일기에는 고종의 지시가 기록돼있다.

“신광 첨사 손규현이 길을 떠나며 인사를 하니 긴 활과 화살, 애기살과 통아 등을 내려 주라(備忘記, 神光僉使孫珪憲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임직을 받아 떠나는 무관에게 활과 화살 일체를 챙겨 하사하는 관례가 있었고, 고종 임금의 나라를 위해 멀리 변방으로 떠나는 신광 첨사를 위해 민음의 표시를 하사한 것이다.

손규현은 아들 셋과 딸 넷을 두는데, 첫째는 가문의 후사를 위해 양자로 보냈고 둘째인 기현(基賢)이 대성사의 부친이다. 성사의 부친은 조부가 40세가 넘어 늦은 나이에 북쪽 임지인 신광에 있을 때 태어났다.

대성사가 어떻게 자랐으며 누구인가를 알려면 빼와 살을 주고 명을 내려준 부모를 살피는 일이 당연하다. 부친인 손기현(孫基賢, 1883~1942)은 조부의 영향으로 타고난 무굴이었으며, 어려서부터 병사를 호령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천성을 지녔다. 하지만 국운은 이미 기울어 더 이상 무반으로 진출할 길도 세상을 위해 꿈을 펼칠 기회도 사라진 시대를 살아야 했다. 구한말 어지러운 정세에 조부는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밀양 죽서리로 낙향 은거 한다. 정국이 어렵고 정치가 오염됐을 때 일직 손씨 조상들이 행하였던바 옛길을 따라간 것이다.

손기현의 다른 이름은 기준(基準)이고 자는 보현(甫賢)이다. 재령이씨 이근호(1884~1968)와 혼인하여 아들 둘, 딸 둘을

두었으니, 그 중 둘째 아들이 손민호, 대성사이다. 재령이씨는 영남 남인의 중심으로 번성하던 가문을 일군 밀양의 대표적인 권세가였고 부자 집안이었다. 대성사의 모친은 시집 올 때 예단 뿐 아니라 찬모며 침모를 길게 거느리고 와 인근의 화제가 됐다고 전한다.

모친 이근호는 불심이 깊어 늘 말과 행동을 삼가하여 산 것을 해치는 일을 보면 말리고 꾸짖어 미물이라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랐다고 한다. 방안에 들어온 벌레 한 마리도 종이로 살짝 들어 밖으로 치울 정도로 조심했는데, 대성사는 어린 시절부터 모친의 불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대성사가 세상에 난 것이 1907년, 시대는 어렵고 가혹했다. 고종황제는 헤이그에 일

자 일본 순사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한마디로 밀양의 분위기는 시국을 따라 요동치고 있었다.

밀양군 상남면에는 금광이 있었는데 1907년 3월 일본인 토시마라는 자가 광업권을 따내서 군민들의 원성을 샀다. 동시에 일본인들은 밀양 은행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자본수탈을 위한 금융조합을 만들었다. 밀양은 일제에 의해 영남권 경제침탈의 교두보로 인식되면서 그야말로 일인들의 수탈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압박은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눈에 심는 벼마저 일본 종자인 하야카미리키(早神力)를 심도록 강요받고, 1908년에는 드디어 밀

조선 각지에서 의병 투쟁은 그치지 않고 일제를 괴롭혔다. 일본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거나 전투를 벌였고, 1907년부터 1909년까지 무려 2,700회의 전투가 벌어졌다.

참가 의병은 약 4만여 명으로 전국 어느 한 곳 빈틈없이 조선 전역에서 격렬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다.

1909년 9월에 이르러 조선총독부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일명 남한 대토벌을 벌이게 되는데 의병 토벌을 빌미로 양민에 대한 무차별 살육과 약탈을 벌여 잔혹함을 드러냈다. 103명의 의병장이 전사하고 23명의 의병장은 형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일제는 항일을 처절히 응징함으로써 반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

부친 손기현, 나라의 독립위해 수많은 의인들과 망명길로…

‘산 것 해치지 말고 미물조차 귀하다’ 불심 깊은 모친 영향

제 침탈을 알리는 특사를 보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이토 히로부미의 건의로 이완용 내각이 들어섰다.

이완용은 고종에게 총을 겨누고 압박하여 강제로 순종에게 양위하고, 정미 7 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보호령으로 전락하고 만다.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그 이튿날 순종 황제가 즉위했으나,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인 항일 의병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해산된 군대와 전국의 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을 조직하여 한양에 진격하고 전국의 전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

시국의 여파는 대성사의 고향 밀양에도 고스란히 닥쳤다. 일찌감치 친일 조직 일진회(一進會)가 밀양에 조직돼 활개를 치고 다녔다. 일제 순사들이 밀양에도 주둔하며 불온한 기미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6월이 되자 밀양 현감은 병을 핑계 삼아 문을 걸어 닫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동시에 일본어 학교를 휴교시키고 고종 양위 당시 체포됐던 이들을 모두 풀어주고 만다. 밀양 유전 일대에서 의병 30여 명이 봉기하

양에 보통학교가 세워져 일제의 공민 교육과 융화정책이 시작된다. 일제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나라를 빼앗겼다는 시름은 점점 깊어졌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친일의 길을 걷는 자들이 속출하고, 총을 들어 저항하던 이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그래도 항일의 기세는 꺾이지 않아 1908년 8월 21일에는 의병 20여 명이 밀양 현병 분견대와 전투를 벌였고, 10월 27일 자 대한매일신보는 밀양에서 의병 20여 명이 일본군 수비대와 접전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밀양 인근은 경남 의병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됐다.

1909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처형된다. 1910년에는 결국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폐지되고 만다.

500년을 이어가던 조선의 역사가 끊긴 것이다.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임명되었고,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명목으로 조선의 농지 수탈하고 경제를 파괴하여 압박과 수탈에 나섰다.

다. 그런 폭압에도 저항은 사라지지 않고 더 거세졌다.

1909년 10월 5일 밤 의병들은 밀양에도 나타나 일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의병이 모습을 보인 곳은 대성사의 집이 있던 산외면 인근인 북북면으로 소식은 삼시간에 밀양 전역으로 퍼졌고 일본 현병 주재소는 급박한 사정을 총독부에 보고하고 있었다.

시대는 점차 항전의 분위기를 높여가고 있었다. 의병들은 국내에서도 전투를 벌였을 뿐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가 거점을 만들어 무한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성사의 부친은 타고난 무인이었다.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뜻을 굽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그르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시대는 그에게 무릎 꿇고 살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망국의 시대에 수많은 의인들이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 망명길을 나서게 된다. 모두가 침묵할 때 홀쭉 일어서 싸우기에 나섰으니 그들이 당시 외친 말은 “너희가 팔아먹은 나라, 우리가 되찾겠다.”였다.



사진은 1930년 대성사 가족. 맨 왼쪽 뒤 원정 대성사. 가운데 부친 손기현, 모친 이근호 님

경

동해중학교 54주년 창립기념

축

1967년 11월 27일 개교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지도자가 되자

동해중학교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Tel. 051.555.4456

2.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修行)

지난 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시고 말씀하신 가르침을 우리 중생들이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행하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신 가르침을 ‘근본교설’이라 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실천케 하는 말씀을 ‘수행교설’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존재에 대해 설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체 존재의 이치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설하셨는데요, 이를 수행교설이라 합니다.

이론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실천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수행,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행(修行)의 글자를 보면, 닦을 수(修), 행할 행(行)입니다. 즉 닦아서 행하는 것으로서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닦고 행하느냐? 가르침대로 닦고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 교설을 몸과 마음으로 닦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닦느냐? 부처님을 말씀을 듣고(보는 것까지 포함), 그리고 이를 깊게 사유하고, 실제로 닦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문사수(聞思修)라고 합니다.

불교수행의 3가지 요소이자 3가지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산스크리트로 pratipatti(쁘라띠빠띠)라고 하는데, 행한다,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 실천이 곧 수행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실천하는가 하면, 수행의 내용은 바로 계정혜(戒定慧)입니다. 이를 삼학(三學)이라 하는데요, 세 가지의 공부라는 뜻으로,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입니다.

계학(戒學)은 계를 지키는 공부입니다. 계는 심신을 조정하고, 심신에 대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방비지악(防非止惡)이라 합니다. 그릇됨을 막고 악을 고치는 것이 계의 본래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삼귀의계 오계, 팔재계, 십선계, 출가

자는 250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계를 줄여서 말하면, 몸과 입과 마음(뜻)을 청정히 하는 것이 계(戒)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실생활의 예를 든다면, 거짓말, 악한 말, 욕설, 이간양설, 험담, 꾸미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심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감정을 잘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학(定學)입니다. 선정에 드는 공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의 계학을 통해서, 계를 지키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공부입니다. 계를 통해 몸과 마음이 조정되고, 이러한 조정을 반복함으로써 일상에서도 선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면, 모든 법의 참다운 상(相)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혜학(慧學)입니다. 지혜를 증득하는 공부입니다. 지혜 가운데 지(智)는 아는 것이고, 혜(慧)는 세상이치를 명석하게 분별 판단하여 일체존재의 실상을 환히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에서 지(智) 보다 혜(慧)가 함의(含意)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학을 통해서 얻는 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증득함으로써 생로사(生老死) 가운데 일어나는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열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은 지혜의 증득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수행의 최종 목적, 종착역은 깨우침이자 지혜의 증득이며, 또한 고의 소멸, 열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수행에는 4가지 과정, 단계가 있는데요, 이를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 합니다. 신(信)은 독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해(解)는 바른 이해, 깊은 헤아림을 말하는 것으로, 해(解)가 없는 믿음은 광신(狂信)이나 맹신(盲信), 미신(迷信)이 되는 것이니 바른 이해가 필수입니다. 바른 이해와 깊은 이해 속의 믿음이라야 확신(確信)이 되는 것입니다.

행(行)은 바로 수행, 실천을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깊은 이해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염불(空念佛)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론 뒤

에는 실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行)이 있음으로써 증득이 있게 됩니다. 이를 증(證)이라 합니다. 따라서 증득이라는 것은 문사수(聞思修)와 계정혜(戒定慧), 신해행(信解行)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끊임없이 행하는 것을 정진(精進)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수행법은 교설의 내용에 따른 수행, 방법에 따른 수행, 시대에 따른 수행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교설의 내용에 따른 수행으로는 사성제(四聖諦)의 진리에 입각하여 도성제(道聖諦)로서 팔정도(八正道) 수행이 있고, 열 가지의 바른 삶, 생활법인 십선업(十善業) 등이 있으며, 방법에 따른 수행으로는 진언염송, 참선, 간경, 독경, 사경, 염불, 절 등이 있

신 것입니다. 우리도 수행을 통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체 고통과 괴로움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악업의 근원을 이루는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삼독심은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요, 고통의 원인입니다. 고통을 소멸하는 길은 바로 이 삼독심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앞의 삼독심과 고통을 소멸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해탈 열반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무명(無明)을 타파하고 미혹(迷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은 삼독심이며 무명 또한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BBS 부산불교방송 법경정사의 수요법문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수행이 무엇일까요?

실천이 곧 수행, 세 가지 공부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 불교 수행에는 4가지 과정, 신·해·행·증(信解行證)의 단계

께서는 무명을 멸하고 타파하기 위해서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지혜를 닦는 그것이 곧 수행이며 무명(無明)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수행은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며 지혜의 증득으로 고통을 멸하게 되는데, 고의 소멸이 곧 무명을 타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앞의 네 번째와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제법실상(諸法實相)에 대한 이해와 자각으로서, 지혜의 증득을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수행을 통해 현실생활에서 우리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이유로서, 여섯 번째는 악업(惡業)을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제악막작(除惡莫作), 방비지악(防非止惡)이라고 합니다.

모든 악함을 짓지 아니하고, 나쁜 것은 막고 악한 것은 그친다는 것입니다. 수행의 이유와 목적이자, 수행의 내용이며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출가자의 전유물도 아니요, 산속 깊은 곳에서 도 닦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수행이며, 삶 자체가 곧 수행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전부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잠자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곧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성숙,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내면적 성숙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화내지 않고, 배려와 이해, 칭찬과 응원을 보내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생로사(生老死)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온을 얻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생활 가운데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이치와 참모습을 깨쳐서 대지혜(大智慧)를 체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요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요일	9시 30분 ~ 14시
점심시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밀교와 신비주의 ③

진실섭경(眞實攝經, Tattvasamgraha)은 유가탄뜨라의 대표 경전이다. 진실섭경에 나오는 관법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첫머리에 나오는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이다.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

오상성신관은 자기의 마음 탐구에서 시작하여 월륜과 삼매야형으로서 오고금강(五鉤金剛)의 관법을 통해 자기와 본존과의 입아아입을 도모하고, 자기 속에 자성으로서의 청정광명을 발견하여 인간 속에 존재하는 여래성을 알기 위한 5단계 관법이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통달본심(通達本心), 수보리심(修菩提心), 성금강심(成金剛心), 증금강심(證金剛身), 불신원만(佛身圓滿)이라는 이름을 가진다.

인간 존재의 대표가 되는 행자는 오상성신에서 일체의성취보살(一切義成就菩薩)이라 한다.

보살이 고행에서 정등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그 배후에 석존의 성도를 방불케 하는 것이 있다.

일체의성취보살이라 할 수 있는 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환상과 같은 성질을 흰해 깨달아 알고 명상에 잠긴 상태, 즉 아자파나가삼마지(阿婆頗娜伽三摩地, āsphānakasamādhi)보다 여래의 경각(驚覺)보다 더 빨리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실한지를 여래에게 묻는다.

그 답으로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이 설해지고 수행 방법과 진실의 내용이 밝혀진다.

스스로 '여래'라는 자각

첫 번째 통달본심(通達本心)에서, 행자(行者)는 om cittaprativedham karo-mi(옴 찌따쁘라피베다함 까로미)라고 하는 진언을 외고,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월륜의 형태를 한 것을 관한다.

제2 수보리심(修菩提心)에서는 마음은 자성으로서 청정광명(prakṛtiprabhasvara)임을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om bodhicittam utpādayāmi(옴 보디찌탐 웃빠아다야아미)라는 진언을 외고, 보리심을 일으키며, 행자는 먼저 월륜의 형태를 한 것이 바로 월륜임을 관하게 된다.

제3 성금강심(成金剛心)에서는 일체여래의 마음인 보현심(普賢心)을 일으켜 그것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om tiṣṭha vajra(옴 띠씨따하 바즈라)라는 진언을 외치며 자신의 마음의 월륜에 금강의 형태를 관한다.

이 금강은 오지(五智)를 상징하는 오고(五鉤)의 금강저로, 오지를 갖춘 대일여래

여 행자가 om vajrātmako'ham(옴 바즈라뜨마꼬함)이라는 진언을 외우면, 금강계 대일여래가 행자 안으로 들어가고 일체의 성취보살인 행자는 금강계의 관정을 받고 금강계보살이 된다.

제5 불신원만(佛身圓滿)은 이상의 차례를 거쳐 행자는 자기의 신체가 여래의 신체와 다름 아닌 것을 알고 om yathasarvatathagatas tathā'ham(옴 야따하 사르바따따아가따스 따따함)의 진언을 외워 스스로가 여래 그 자체라는 자각에 이르러 그것을 선언한다.

마음 관찰에서 비롯해

진실섭경의 관법이 스스로의 마음 관찰에서 비롯돼 그것을 무자성(無自性), 공

자성으로서 청정광명

『진실섭경』에서는 마음을 무자성공(無自性空)으로 보는 입장을 넘어 자성으로서 청정광명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월륜을, 그 속에 금강을 관상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와 절대

의 상즉을 도모하며, 유한한 인간의 몸속에 절대적인 여래를 보아 양자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계제(階梯)를 5단계의 관법으로 조직화한 점에서 오상성신관은 밀교의 입

아아입관의 전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오상성신관의 차례는 『진실섭경』의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한어 3편이 모두 언급되지만, 그 명칭은 불공역 『십팔회지귀(十八會持歸)』에만 설교된다.

한편 무상유가탄뜨라에서도 부(父)탄뜨라계의 성취법에는 이런 관법은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상유가탄뜨라를 통해 일관된 형식을 가진 성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체의 다섯 군데로 관상

예를들어 무상유의 부(父)탄뜨라를 대표하는 비밀집회탄뜨라(Guhyasamājatantra)의 경우.

비밀집회탄뜨라도 『대일경』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법을 혼재시켜 대표적인 성취법을 택하기 어렵다.

다만 그중에서도 비교적 잘 정리된 것으로 사지(四支)의 성취법이 있다. 즉 전행(前行, seva), 근사성취(近似成就, upasādhana), 성취(成就, sādhanā), 대성취(大成就, mahāsādhana)의 4종이다.

이 탄뜨라의 제12분(分)에서는, 전행은 몸자를 신체의 다섯 군데로 관상하는 요가에 의해 계를 지키는 것이며, 그 뒤를 이어 행자 스스로가 신어심금강불괴(身語心金剛不壞)의 성(性)을 가지게 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부처의 가지에 의해 깨어나는 것이, 근사성취(近似成就), 성취(成就), 대성취(大成就)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타라탄뜨라(Uttaratantra)라 일컫는 제18분에서는 이 사지(四支)의 성취법의 내용이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져 상당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즉 제1지의 전행을 일반적인 성취법인 4종의 금강법(vajracatuṣka)과 특수한 성취법인 6지유가(ṣaḍaṅgayoga)로 양분한다. 전자는 생기차제(utpattikrama)의, 후자는 구경차제(utpannakrama or sampannakrama)의 기반이 되는 성취법이다.

〈다음호에 이어〉

유가탄뜨라의 대표 경전, 진실섭경경(眞實攝經, Tattvasamgraha)

무자성(無自性), 공(空), 여환(如幻) 등 대일경「주심품」서술과 비슷

의 삼매야형으로 간주된다.

금강지 역의 약출염송경(略出念誦經)만은 이 성금강심에 광관(廣觀)과 관법(觀法)의 차례를 부여한다.

광관(廣觀)은 관법의 대상인 금강저를 점차 확대하여 우주 전체에 가득 채우는 관법이고, 수렴관(斂觀)은 우주에 가득 찬 금강저를 점차 수축시켜 자신의 심중에 넣는 관법이다.

이 광관, 수렴관을 자유자재로 행함으로써, 유한한 자신의 마음이 무한한 우주에 펼쳐져 동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주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한다.

제4 증금강신(證金剛身)은 일체여래의 마음인 보현심의 금강을 견고히 하기 위하

(空), 여환(如幻) 등으로 보는 점은 대일경의 「주심품」제1의 서술과 비슷하다.

경전으로 상당한 준비를 보이고 있는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불공역, 시호어에서는 최근 『대일경』의 「주심품」적 표현은 불식되고는 있지만, 금강지역의 약출염송경, 마찬가지로 금강정경유가수습비로자나삼마지법(金剛頂經瑜伽修習毘盧遮那三摩地法), 또 불공역의 금강정연화부심염송의 궤(金剛頂蓮華部心念誦儀軌)에는 비슷한 표현이 보인다.

다만 공, 여환으로 보는 경지는 아자파나가삼마지(阿婆頗娜伽三摩地, āsphānakasamādhi)로 부정되고 초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이 『대일경』의 「주심품」의 마음의 이해와는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상유가탄뜨라에서의 입아아입관도 기본 관법으로는 행탄뜨라 및 유가탄뜨라의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그 적용범위는 매우 넓어 무상유가탄뜨라로서의 대표적인 관법을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무상유가탄뜨라 가운데 모(母)탄뜨라계의 성취법(sādhana)에는 힌두이즘의 샤크티적 색채를 농후하게 나타내는 것도 적지 않다.

요가에 있어서, 여성의 동반자를 필요로 하며, 여성을 우주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샤크티(śakti)로 간주해, 행자는 여성과의 요가를 통해서, 대우주와의 일체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의 맥관(脈管)과 룬(輪)에 생리적인 제어를 가하거나, 혹은 이들의 자유로운 생명력을 철저히 발휘시키기 위한 관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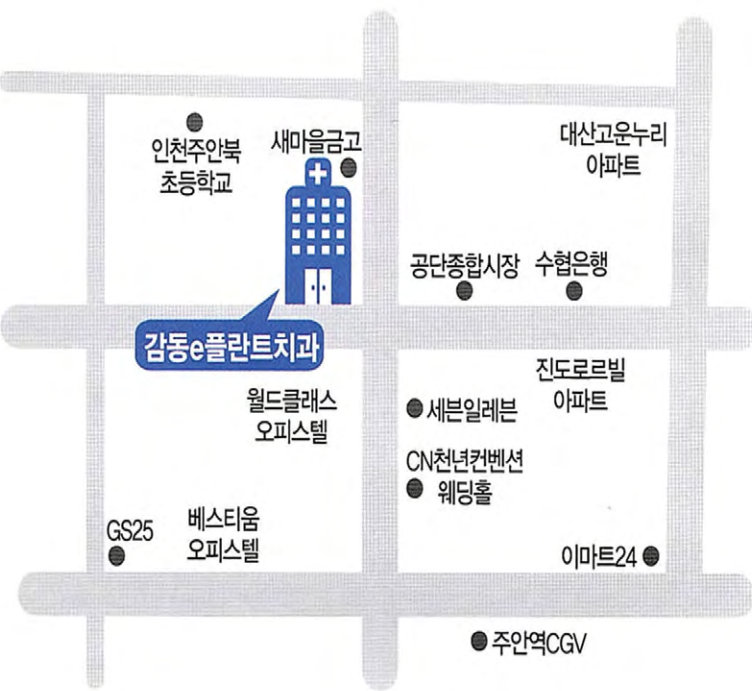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6>

억울함을 당했을 때 무아의 지혜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남의 비난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가 있지요? 또 철석같이 믿었던 가까운 이가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어깨를 부딪치거나 만원 지하철에서 발을 밟히기도 하지요. 가벼운 한두 차례 실수는 누구나 저지룰 수 있으니 쉬이 넘어가지만, 오히려 비난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참고 지나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잘못 대처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우울증에 걸리어 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부처님 제자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이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여 비난을 받거나 믿었던 가까운 이에게 배신을 당하면 상대를 원망하고 보복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흔한 다툼과 갈등은 이렇게 일어나지요. 싸움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 심증판구는 이처럼 상대를 원망하고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총돌이 친구와 가족, 그리고 집단 차원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감정의 골이 깊이 파이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지고 원수가 되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툼은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단체, 그리고 민족과 국가, 종교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한국과 일본도 그렇지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의 기독교와 이슬

람,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의 종교 갈등은 십자군 전쟁 이래 1천 년이 넘어 지금까지 수많은 살상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 종교의 대립 갈등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현존하는 불교 지도자 중 가능 유명한 분이 티벳불교의 달라이라마 스님입니다. 스님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적이라 부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에 상관없이, 세상 모든 존재는 우리 자신이 그렇듯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임을 떠올린다면, 비로소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스님은 진정한 삶의 승리자는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분노와 미움을 이겨낸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다는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이 전생에 인옥보살일 때, 숲속에서 가리왕을 만나 사지를 절단당하는 악행을 당합니다. 물론 부처님 잘못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왕권을 가진 가리왕은 인옥 수행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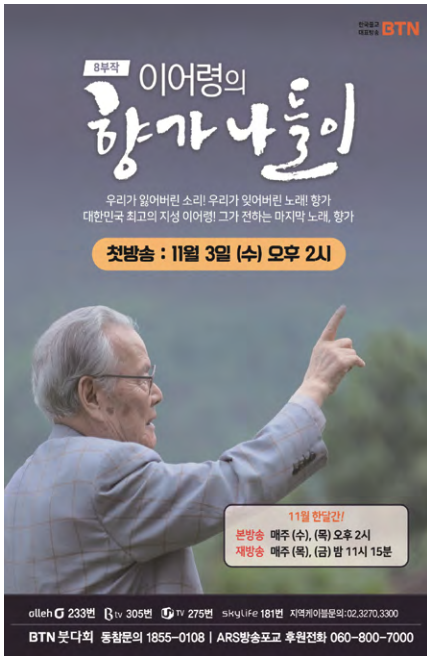
인옥행을 시험한다며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악행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가리왕에게 화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나’라는 상(相)이 없는 무아(無我)를 알았기 때문에 사지를 절단당하는 능욕을 당하고도 괴로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만약 이때 부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였다면 가리왕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화를 내어 그 업(業)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라면, 부처님의 무아(無我)의 지혜를 배워 자기 것으로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나’라 할 것이 본래 없다고 보고 믿고 평상심으로 여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있다는 분별심으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을 낸다면 생사 윤회의 고통을 끝없이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BTN불교TV, 8부작 이어령의 ‘향가 나들이’ 「삼국유사」속 5편 새로운 해석, 3일 첫방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가 한국의 대표 지성이며, 한 시대

를 풍미한 문화전령사 이어령 전문 화부 장관이 전하는 마지막 노래, ‘이어령의 향가 나들이’를 11월 3일부터 8부작에 걸쳐 방송 한다.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전하고, 존경을 받아왔던 89세의 노(老)학자 이어령은 생애 마지막 여정으로 향가(鄕歌)를 택했다.

‘이어령의 향가 나들이’는 토크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일연스님이 답아낸 한국 최고의 이야기 창고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14수 중 5수에 대해 이어령이 스토리텔러가 되어 새로운 해석을 전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인문학적 의미까지 담아낸다.

프로그램 중, 교과서에서나 접 하던 향가를 왜 굳이 지금 다시 꺼내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어령은 “향가를 배운다는 건 고향의 노래,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이번 방송을 통해 “그동안 문자 해석에 매여, 보지 못했던 신라 향가의 진면목을 재발견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현화가, 처용가, 찬기파랑가 등 11월 3일 (수) 오후 2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매주 2편 씩 방송되며, 본 방송은 매주 수, 목 오후 2시 재방송은 매주 목, 금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10·27법난 추념 전국승려문예공모전 대상작

가사를 정대하며

혜해스님

생각한다

우리의 가사는
무엇으로 하여 고귀한가

시월의 가사를 정대하며
그의 씨실은 쓰라린 계절로
그의 날실은 무심한 세월로
짜였음을

그리하여 그리도
목직함을
그럼에도 그렇게
단정함을

생각한다
때로
내 몸이 바늘이라면
쓰라린 계절 무심한 세월

한 귀퉁이에
무거움도 단정함도 이제는 지친
낡은 천들 거두어
상한 데, 거친 곳 오래 달래며
새로 한 벌 기워내면 좋겠다

생각한다

가끔은
참 맑은 날
하얀 햇볕에 종일 널어두고서
한가득 바람과 놀게
너른 품 풀향기 질게,
잊게
둘 텐데

핏빛 공포도
젖빛 참상도
시대도

절망도
모진 매질도

빠 드러내는 결기도
병어리 같은 장엄도
숨죽여 우는 긴밤도
피멍울 같은 신심도

잘 마른 황토빛 자락
바삭한 옷감 그속에 묻히게
넉넉한 물결에 잠기게,
담기게

스윽
가만히 만져볼 텐데

스룩
고개를 숙여볼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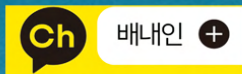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후원업체
(주)동원글로벌

Bene

배내인 물티슈

배내인이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 입히는
배 냇저고리의 의미처럼 부모 사랑을 뜻합니다

구입방법:쇼핑몰 benein.com /



카카오 배내인 추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리점 ,유통상담환영 /라벨 인쇄 판촉용 상담
대량 구매 상담 T.070-7596-2401



엠보싱 물티슈 100매입

엠보싱 적당한두께



베이직 물티슈 100매입

가성비갑 사무실용으로 최고



휴대용 손세정물티슈 30매입

알코올함유



총/지/문/답 14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밀교의 스승, 아사리(阿闍梨)



삼밀가지(三密加持)란 손으로 결인을 하고 입으로 진언을 염송하고 마음으로 본존을 관상하는 삼밀관행(三密觀行)에 의하여 법신불의 가지력(加持力)이 진언행자에게 미쳐

서 진언행자와 법신불이 일체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삼밀상응, 또는 삼밀유가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알려주기도 어렵다.

이러한 삼밀가지를 통하여 진리를 체득하고 삼밀가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이가 스승이다. 밀교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삼밀가지의 초월적 세계를 제자

에게 전해주는 스승, 즉 밀교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고 청정한 계율을 지니며 제자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스승을 아사리(acarya)라고 한다. 자료사진=불교총지종 스승

동해중 반야회 10월 정기법회 개최

2부 행사로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특강



종립 동해중학교 학부모 불자회인 반야회(회장: 지은경)가 지난 10월 25일 오후 동해 책마루 도서관에서 회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열었다. 1부 불공 후 2부에서는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은 진

로진학지도 관련 학부모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송교장은 “학생들의 학습 습관이 결국 진로를 결정한다.”고 전제하고 “학부모가 자녀 학습에 꾸준한 관심과 격려로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7회 추계강공회 성공양 고맙습니다

관성사 인정회
밀인사 인정회
성화사 인정회
자석사 인정회
대구경북 인정회지회

서울경인 인정회지회
김은숙 지회장
수인사 김진
성화사 오순자
관성사 김병석



불교서적 월간베스트(10/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3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것	동명 스님	조계출판사
4	요가수트라	현천 스님	선요가
5	눈먼 보리와 도둑 고양이	동은 스님	불교신문사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안 '울음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심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향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로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설판재자(設辦齋者) 공모불사

고려시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한국 밀교를 이 땅에 다시 꽃피우게 하신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1907~1980)의 일대기가
최초로 책으로 출간됩니다.

한 시대를 치열히 살아간 밀교 수행자이자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종교적으로 구제하려한 선각자 원정 대성사.
밀교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리셨으며,
정통밀교의 법맥을 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열어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일체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대비원력(大悲願力)으로
1972년 불교총지종을 세우셨습니다.

금번 일대기는 말법시대 밀법으로 수행의 근본을 세운 원정대성사의 삶을 통해,
현대 한국 밀교 태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총지종의 종지와 수행법, 밀교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창종 50주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교도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대성사님의 일대기에 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원정 대성사님의 삶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
전법의 역사를 길이 전할 역사적인 출간을 알리며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엮어내는 소중한 일에 다 같이 동참하는
'설판재자(設辦齋者) 공모불사'를 시작합니다.

한권 동참금 1만원(동참자는 책 뒷면 명단 수록 및 일대기 출판 후 자택 배송)

설 판 기 간 2021년 11월 20일까지

동 참 방 법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3-240942 예금주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불사 동참 후 재적 사원과 성명, 주소를 일대기 담당자(☎ 070-5178-0215~7) 앞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설판(設辦) 이란?

설판(設辦)의 설(說)은 설법회, 불사(佛事)의 모임을 말합니다. 판(辦)은 '힘쓰다, 주관하다'라는 의미로 불사의 중요하고도 큰 부분을 맡아 신심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설판재자(設辦齋者)란 불사나 법회를 베풀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담당하여 애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설판공덕은 부처님의 일을 완성하는 불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 법회를 원만성취하도록 하는 공덕이므로 불보살님의 감화력이 모든 중생에게까지 두루 미치게 하며, 결과적으로 내 작은 정성의 힘이 못 중생을 제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설판재자는 바로 이 공덕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